



맑은샘 도서관

#경기도 의정부시 #임대료, 공과금 지원

갈증을 해소하는 곳

맑은샘 도서관의 이름 속에는 우리 도서관의 꿈이 들어있답니다. 산속 동물들은 목이 마를 때 샘을 찾습니다. 샘에 와서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처럼 우리 동네 누구라도 갈증이 생길 때, 그것이 지적이든 인간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맑은샘 도서관에 오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자 합니다.

사랑방 도서관, 시끌벅적 도서관, 나만의 도서관

맑은샘 도서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랑방, 우리 동네에서 가장 친근한 공간이고 싶습니다. 공공 도서관에서 조용히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무엇이든지 여러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시끌벅적 도서관이려 합니다. 나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 그것이 쌓여서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 나의 자녀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고자 합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맑은샘 도서관의 2017 년은 어떠했나요?



7개월 동안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매번 임대료나 공과금이 밀려가면 마음도 무겁고 도서관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료에 대해 매달 고민이 컸기 때문에 이번 긴급지원119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대료의 부담이 없어지게 되면서 운영진들의 고민이 해결되어 보다 편안하게 도서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돕는 봉사자들도 마음이 훨씬 가벼웠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시원하고 따뜻해진 도서관을 사랑방처럼, 쉼터처럼 더욱 편안하게 이용합니다. 부모님들도 더 안심이 된다고 좋아하시고요. 다들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도서관 운영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서 맑은샘이 가장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함께 좋아해주셨죠. 다들 작은도서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이었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몇 명의 후원자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긴급지원119는 또 하나의 작은도서관이 탄생하는 데에 큰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관장이 되겠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맑은샘에서 함께 자원봉사로 일하던 한 분은 새 아파트 입주하면서 작은도서관 관장이 되겠다고, 의정부시의 도서관 지원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되어서 지금 작은도서관 설립을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자신의 아이와 이웃의 아이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설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기까지, 긴급지원119사업과 같은 지원사업들이 힘이 되었고 운영해나갈 용기를 가지게 해주었다고 하십니다. 맑은샘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보람을 느낀 일이 또 있습니다. 한 남자 어른이 도서관을



맑은샘 도서관의 2018 년은 어떠한가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방문했습니다. 밖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니 너무 궁금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애아동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지내신 분이더군요. 이런 한 분, 한분이 제가 도서관을 힘겹게 운영해나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맑은샘을 아끼는 모든 분들이 2018년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사업과 같은 지원이 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좋겠지만, 의정부시에서 작은도서관을 위한 CMS 후원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도 있다고 하니 기대가 큼니다. 도서관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서관 내 동아리와 공동체 활동을 도우려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운영해야 힘이 나는 곳이 작은도서관이기에 우리와 함께 고민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나는 한해가 될 것 같아요.

또한 책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독서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도서관 이용과 후원에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재능기부를 이끌어내어 도서관과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재능기부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고, 지역사회가 연합하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혼자 힘든 게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니 새해에도 힘내세요.